

# 정헌을 익산시장, 전국체전 막바지 준비 철저

## “체전 중 점검 분야별 준비·진행 만전” 주문

정헌을 익산시장은 지난 9일 전국체전 개막 전 최종 준비상황을 철저히 체크하고, 문제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기간 중에도 수시 점검을 통해 선수단 및 관람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각 분야에서 준비 및 진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익산시는 종합안내소, 선수단

환영, 영접, 선수단 응원, 의전, 문화예술, 관광, 자원봉사, 숙박, 보건의료 지원 등 종합적인 사항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고, 종목별 경기장 시설 등 현장 사전점검을 실시하며 빈틈없는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응급상황에 대비해 주 경기장에는 의료지원본부를 설치하고, 사전경기를 포함한 경기장 20개소에 의사 23명, 간호사 170명, 운전원 113명

등 120개 의료지원반을 편성해 파견할 예정이다.

익산시장은 “12일, 전 국민의 스포츠 대축제 전국체전의 시작을 알리는 개회식이 주 개최지인 우리 익산에서 열린다.

개회식을 기점으로 많은 사람들이 익산을 찾을 것”이라며 “며칠 남지 않은 준비 기간 동안 손님맞이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체전기간 동안 ‘친절한 도시, 언제든 다시 찾고 싶은 익산’을 전국에

보여줄 수 있도록 익산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8 전국체전은 12일부터 18일까지 익산시를 포함한 전북도내 14개 시군에서 개최되며, 익산시에서는 육상, 야구, 복싱, 펜싱, 배드민턴, 보디빌딩, 축구, 배구, 검도, 철인3종, 볼링, 체조(에어로빅) 등 12개 종목이 20개소 경기장에서 개최된다.

개회식은 12일 오후 4시 50분, 익산 종합운동장에서 열린다.

/익산=우병희 기자



군산시는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군산예술의전당 제1·2·3전시실에서 '해외교류도시 어린이 그림 전시회'를 개최한다.

## 해외교류도시 어린이 그림 전시회

15~21일 군산 예술의 전당서

군산시는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군산예술의전당 제1·2·3전시실에서 '해외교류도시 어린이 그림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는 군산시의 국제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미국 타코마, 캐나다 윈저, 중국 옌타이, 일본 다카마쓰의 어린이들이 그린 그림들과 군산시의 6세부터 12세까지의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도시별 30점씩 총 150점이 함께 전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시회를 찾은 어린이들이 세계 친구들의 그림을 보면서 갖게 된 아이디어를 도화지에 직접 그려보거나 그림전에 참여한 나라의 국기 색칠하기와 클레이 아트로 공룡 만들기, 블록 맞추기 등 단순히 보는 전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참여하는 전시회로의 변화를 모색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세계 친구들의 꿈과 희망이 담긴 그림 교류를 통해 성장하는 어린이들에게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혀 아이들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시민에게 자긍심을 줄 수 있는 교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 9일 군산-중국 자매우호도시 교류회를 옌타이에서 개최해 중국의 도시들과 돈독한 우정을 나타냈으며 2월과 9월에 캐나다 윈저시장과 인도 잠세드푸르 시장이 군산을 방문하는 등 활발한 해외 교류를 추진해 오고 있다.

/익산=김정훈 기자

## 군산해경, 불법 개조·증축 낚시어선 특별단속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종목)는 낚시어선을 불법으로 개조하거나 증축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돌입할 계획이다.

10월 군산해경에 따르면 승객 편의를 목적으로 일부 낚시어선이 선체 개조와 증축 등을 시도해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어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낚시어선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9.7t급의 경우 선장과 이용객을 포함해 정원 22명이 타게 되는데 승선 인원에 비해 편의시설 공간은 거의 없어 낚시객들의 편의 공간 제공과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선박검사를 통과한 뒤 다시 조선소에서 선체를 개조하고 있는 식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건조당시 기준을 무시한 불법개조는 파도에 기운 배가 바로 설수 있는 ‘선체 복원성’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선체 상부가 높아진 배는 바람에 취약하고 무게도 늘어나 전복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등록된 어선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박종목 서장은 “승객 편의를 도모한 다지만 영업이익을 위한 낚시배 과열 경쟁이 결국 승객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해경이 바다 안전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해양안전에 위협이 되는 범죄행위는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2년간 낚시어선 불법 증축으로 군산해경에 단속된 사례는



군산해양경찰서는 낚시어선을 불법으로 개조하거나 증축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돌입할 계획이다.

모두 6건(6명)으로 관련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졌다.

/군산=김정훈 기자

## 군산농기센터, 명품 흰찰쌀보리 생산 완료

군산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는 보리의 안전한 월동과 적절한 재배면적의 확보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파종을 마쳐줄 것을 당부했다.

보리와 밀은 겨울나기 전 잎이 5~6매가 확보되어야 안전하게 월동해 생육할 수 있으며 종자를 너무 일찍 파종하면 월동 전에 어린 이삭이 생겨 얼어 죽기 쉽고 늦게 파종할 경우 어린잎이 저온에 노출되어 생육이 지연되고 수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파종작

업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현조 기술보급과장은 “시에서는 올해 총 4,200ha 보리 파종 목표를 설정하고 순도 높은 정부 보급종 및 체중포산 우량종자를 확보해 공급을 완료했다”며 “지리적 특산품인 흰찰쌀보리의 명품 유지를 위해 흰찰쌀보리 자체재종포 단지와 지리적 특산품 단지 등 약 100ha를 조성하여 국내 보리 산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 익산시, 전국체전 사진·영상 공모전 진행

익산시가 전국체전 사진 영상 공모전을 진행한다

제99회 전국체전과 제38회 전국장애인체전 기간 중 경기 장면과 더불어 시민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마련했다.

익산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익산시청 홍보담당관 홍보계(☎859-5029)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우병희 기자

## 익산시, 공무원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초·중·고생 대상... 멘토 특강·명함 그리기 등으로 구성

익산시가 초·중·고등학생 대상 공무원 진로체험을 연중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현재 운영 중인 익산시청 공무원 진로체험 프로그램인 '직업탐색, 공무원이 알고 싶다'에 더욱 생생하고 다양한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공무원이 꿈인 학생들에게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공무원에 대한 체험의 장을 마련하고 진로 멘토링을 통해 구체적인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익산시청 공무원 진로체험 교육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이 되는 방법 등 공무원 자세히 알기 △멘토와의 대화 △진로 멘토 특강 △고등학교 특별전형 1:1 멘토 상담 △직업 정사 진화/내만의 명함 그리기 △특폭 시장 실 프로그램 △행복한 익산시, 우리

손으로 만들어요! 정책기획 프로그램 △모의 시정회의 등으로 진행된다.

또한 학생들의 흥미를 위해 △국가 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견학 △재난종합상황실 방문 체험 △친절 민원 안내 체험 △과화영농시설 견학 △작물(국화)재배 체험 △도서관 자료실 운영 체험 △공연장 백스테이지 체험 △보건의료의 다양한 직업 체험 △금연서약 체험 △원수 및 수돗물 수질시험과 수돗물 생산과정 체험 △유역적 시간 견학 등 익산시청의 부서 탐방을 통해 다양한 직렬의 공무원에 대한 생생한 현장 체험을 강화했다.

한편, 익산시청 공무원 진로체험을 희망하는 학생이나 선생님은 익산시청 교육정보과에 전화(☎ 859-5152)로 신청하면 된다.

/익산=우병희 기자

## 익산시,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사업 심의

익산시가 10일 시청 2층 회의실에서 2018년 제40차 익산시 설계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설계심의 대상은 익산 금마면 용운리와 기양리 일원에 규모 8만2,448㎡로 전통문화체험관, 안내소 및 광장, 주차장 등이 조성되는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사업이다.

익산시는 시에서 시행하는 보상비를 제외한 총공사비 3억 이상 100억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의 적정성, 설계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로 부실 설계 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2016년 2회, 2017년 2회의 설계

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왔다.

시 관계자는 “모든 공사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것이 설계인 만큼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설계에 반영해 내실 있는 설계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보상비를 제외한 총공사비 100억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기술자문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 9월 20일 모현동 노인종합복지관 인근에 사업비 110억 3천만 원이 투입되어 다양한 체육시설이 조성되는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에 대하여 기술자문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익산=우병희 기자

# 김태홍 스포츠 이카데미

http://www.kimsleports.com      CEO 김 태 홍

## 서바이벌

레프팅/카약      ATV / 버기카

스키 / 보드      펜션 / 이벤트

Phone. 063-323-8000-1

Fax. 063-323-8000-1

Mobile. 010-3680-2973

E-mail. skijump77@hanmail.net

A. 전북도 무주군 무주읍 무금로 312(용포리485-2)

**대표 약력**

일편인 스키 및 점프선수활동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인버르티 지역 휘트
전국 신인 선수권 대회(금메달)	영국지프 요원 지역중 휘트
국제대회 디슈 참가 및 우승	레프팅 가이드 지역 휘트
동계U대회 국가대표 출전	수상 인명구조요원 지역중 휘트
국가대표 코치 역임	연)김태홍 스포츠 이카데미 대표
일본 삿포로 국제대회 참가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NSL/NSL2)휘트	